

CNI세미나 2022-006

2022년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 '독'인가? '약'인가?

2022. 2. 25.(금) 14:00-17:00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회의실

목 차 CONTENTS

제1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

개 요 01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2부〉 발표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의 이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행정사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05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의 유형과 현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25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3부〉 종합토론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 41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쟁점 토론: 발표자, 지정토론자

지정 토론자: 권영진 회장(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이상환 팀장(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사업팀)

이재범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2년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행정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 농촌주민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사업지원으로 마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주민들의 역량강화 후 사업을 진행하는 역량단계별 사업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과다로 인한 농촌주민의 피로도 증가와 컨설팅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충남은 농식품부의 역량단계별 사업에 선행사업을 추가하여 역량강화 사업이후 소규모 사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행정과 마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마을단위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충남은 광역차원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역량단계별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 행정사업이 마을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만 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2년 제1회(총 53회차) 대화마당은 농촌마을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마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 토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22. 2. 25.(금) 14:00 ~ 17:00
- 장 소: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 회의실
(충남 홍성군 흥복읍 흥예공원로 20)
- 주최/주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관련 정보 및 문의 041-406-7405(송치훈 연구원)
 - 이메일 cnmaeul@gmail.com, 블로그 www.cnmaeul.net
 - 네이버밴드 충남마을넷 band.us/@cnmaeul

○ 세부 프로그램

사회: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3:30 ~14: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발열체크 후 입장
14:00 ~14:20 (20분)	개회 및 참가자 상호 인사 <1부> 2022년 대화마당 취지, 주제, 방향 소개	
14:20 ~15:00 (40분)	<2부> 발표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행정사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유형과 현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5:00 ~15:20 (20분)	휴식 및 교류	
15:20 ~16:50 (90분)	<3부> 종합토론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 ‘독’인가? ‘약’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쟁점 토론: 발표자, 지정토론자 - 지정토론자 3명: 권영진 회장(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이상환 팀장(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사업팀) 이재범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주요 토론과제(예시) - 마을만들기 이해관계자별 행정정보조사사업의 관점과 역할 -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 방향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와 공모사업 사업량, 사업 진행 절차 등) -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연계 필요성과 방안 	
16:50 ~17:00 (10분)	광고 및 정리: 차기 일정 등 홍보	

※ [참고] 월별 운영계획

일시	회차	개최지	주제(예시)	비고
2.25. (금)	1차	(종합) 내포혁신 플랫폼	- 2022년 대화마당 취지, 주제, 방향 소개 [주제]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	
4.29. (금)	2차	홍성군	[주제]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	
6.24. (금)	3차	청양군	[주제]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8.26. (금)	4차	금산군	[주제]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을 점검하다	
10.28. (금)	5차	부여군	[주제]마을독본의 미래를 논하다 - 2023년 이후의 발간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권역 센터) 혹은 시군 지원센터를 원칙으로 함

* 회차별 순서는 시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시군 개최지는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

【2부】 발표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이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행정사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022년 1회(총54회)

2022. 02. 25(금) 14시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와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이해

-행정정보조사사업을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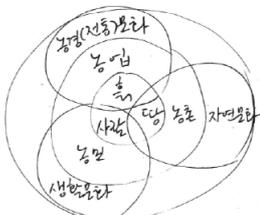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은스**

[출발] 농촌 마을은 자립적이고 자급적인 자치공간 → 주민 스스로 만들어온,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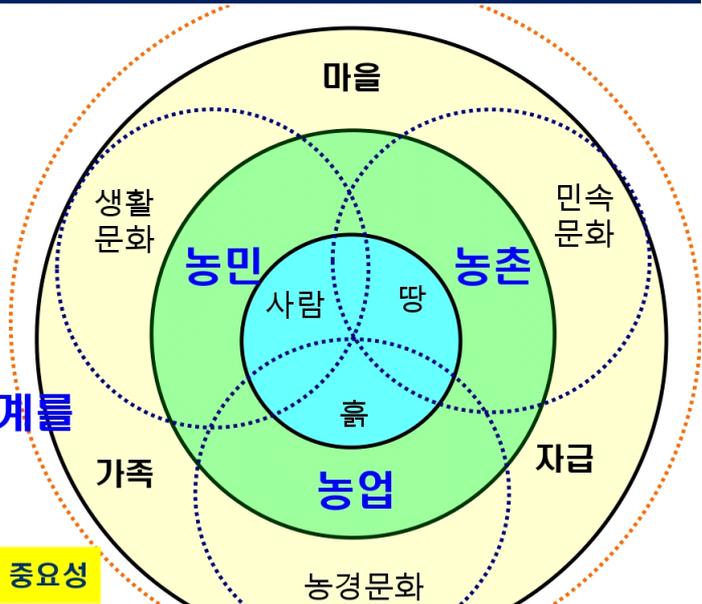
농촌의 자연과 문화 구성과정

⊙ 지역성은 전원 박물관 기호유지업
구인 시업



농업과 농촌, 농민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3농혁신, 마을만들기

상호연계성과 순환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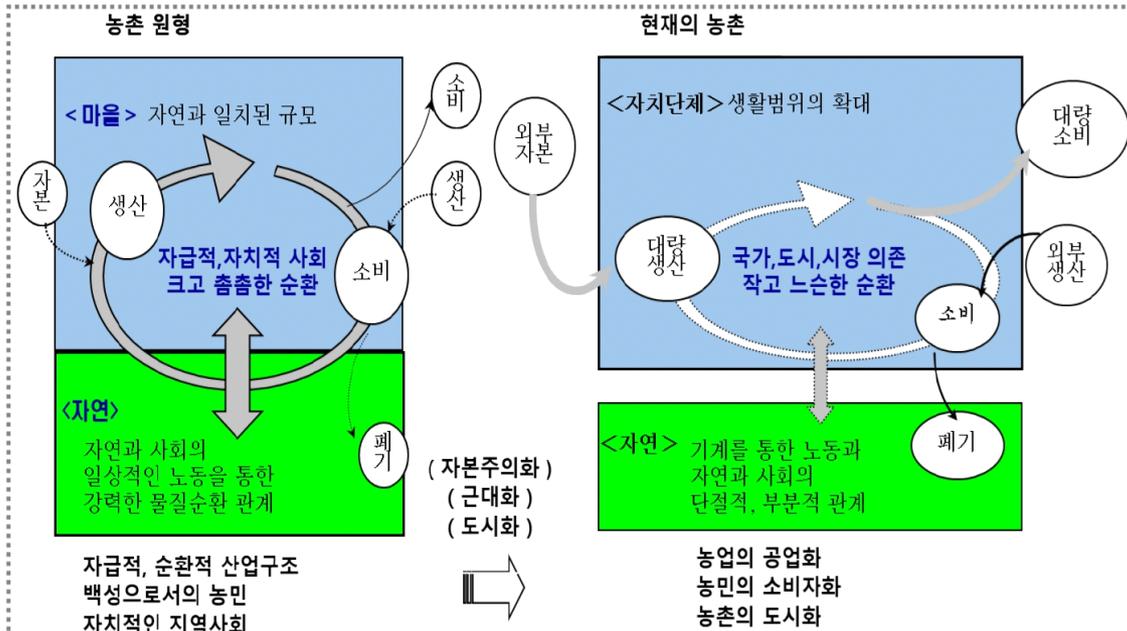


먼저 기본 구성요소인 흙과 사람, 땅을 매개로 각각 농업, 농민, 농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이 상호작용하면서 농촌 문화는 농경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 가족과 마을, 자급이라고 하는 농촌적인 고유한 생활양식이 발현된다.

... 도시와 달리 농촌은 '흙(자연)을 상대로 한 노동이 있고 '땅'(공간)에 상대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사람'(노동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역사1] 20세기 한국 농촌 마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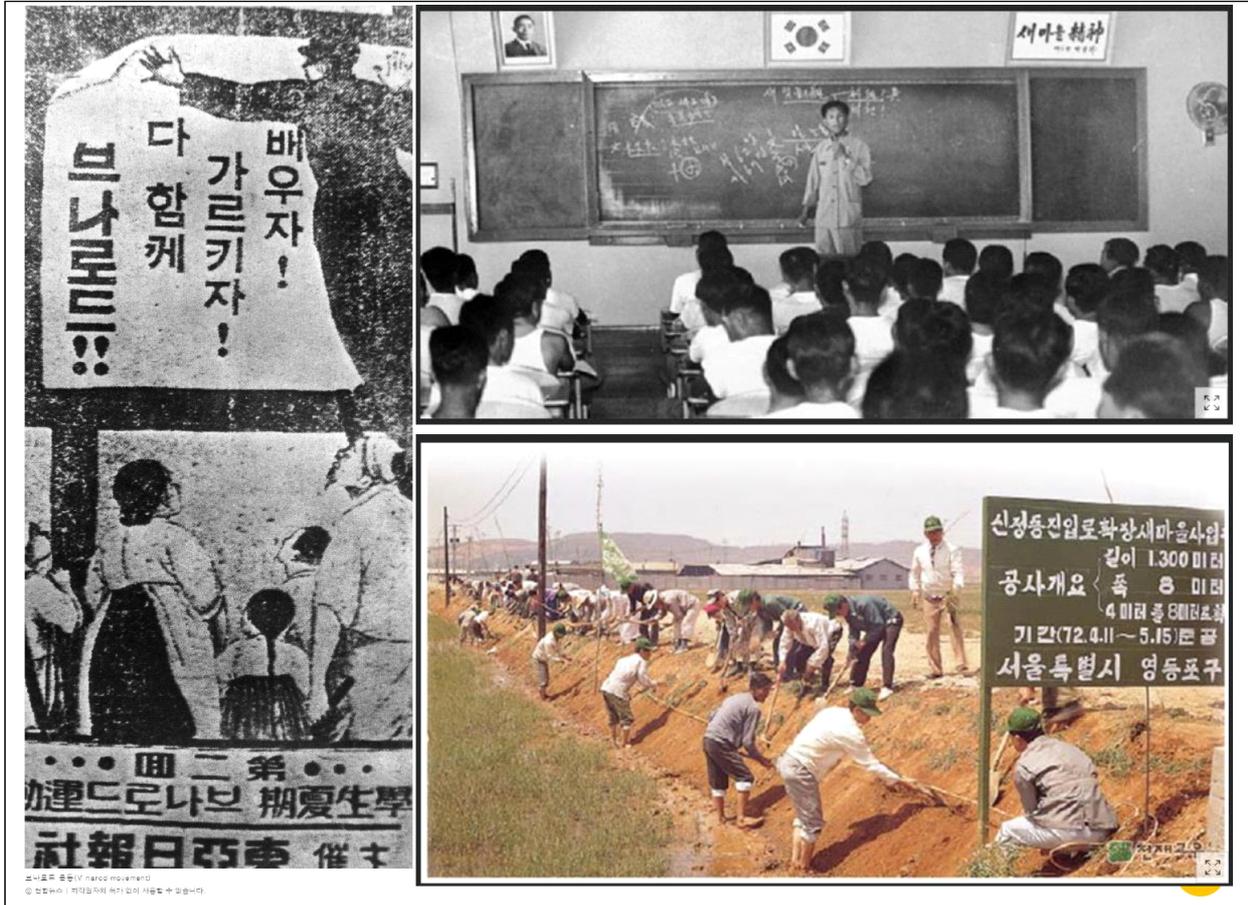
→ 자본주의 근대화, 거점개발, 도시화, 불균등발전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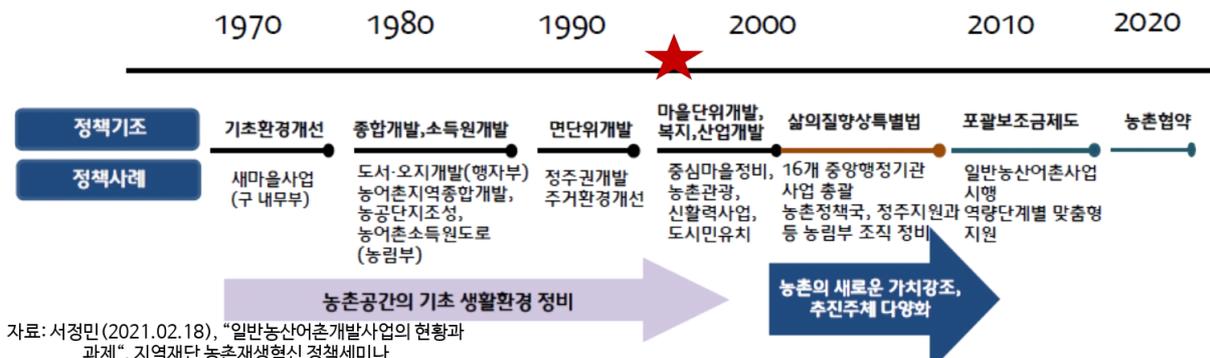
주 : 1. 원형의 크기는 양적인 규모를 의미한다.
2. 화살표의 실선은 주된 흐름을, 점선은 부차적인 흐름을 의미하고, 두께는 그 양을 의미한다

20세기 농민운동사





[역사2] 한국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화와 특징 → 지방자치 시대 풀뿌리 주민자치운동과 괴리된 국가 정책



자료: 서정민 (2021.02.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

- 2001년 농촌지역개발에 '그린투어리즘' 개념 도입
- 2002년 녹색농촌/전통테마 등 **체험마을** 사업 착수
- 2004년 **삶의질 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2005년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 본격 추진
- 2010년 기초생활권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
(농식품부 소관 15개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
- 2014년 주민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도입
- 2018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도입
- 2020년 **농촌협약제도** 도입

'주민 주도, 상향식' 이란 슬로건의 진실과 오류

[역사3] 민간의 분열된 칸막이 운동으로 각개 약진 → 민-관, 민-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 만들기

[참고]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역사 : 한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흐름



현장 경험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 하지만 민간 칸막이도 확대재생산 7



농촌다움의 파괴 = 마을공동체의 붕괴 8

[역사4] 지방자치의 부활과 마을만들기의 등장

→ 무임승차한 지방자치,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성장을 위한 전략은?

■ 마을만들기의 개념

21세기의 새마을운동

- 1) 주민 스스로가 (주체)
- 2)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목표)
- 3) 마을의 생활과 경제, 환경 등 전반의 문제에 대해 (내용)
- 4)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을 거쳐 (출발)
- 5)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 혹은 사업 (방식)

■ 마을만들기의 도입 배경

마을 사업 ≠ 마을만들기

- 하향식 지역개발 사업의 한계 (주민과의 협의 중시)
- 행정 주도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주민자치 의식의 성장)
- 기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 (주민주도의 중요성 인식)

마을만들기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
그러나 풀뿌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창조

9

[전제] 마을만들기와 행정정보조사사업의 관계(문제점)

→ 민-관, 민-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 만들기

문제1) 마을자치 역량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정보조사사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맞춤형서비스 (agrix.go.kr)

농림사업 정보제공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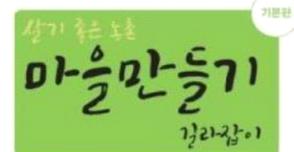
신청자격 농가 농업법인/농업기관 지자체

자금유형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사업년도검색 2021 검색

자가진단 제공

간단한 설문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스스로에게 맞는 사업을 확인



충남연구원 충남지역민들기지원센터 후원

마을조직

마을재산

마을규약

마을회의와 기록

가이드

단행본(통권1~4)
마을자치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PIS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대성 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용천로 141(용곡동 7-2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정로 9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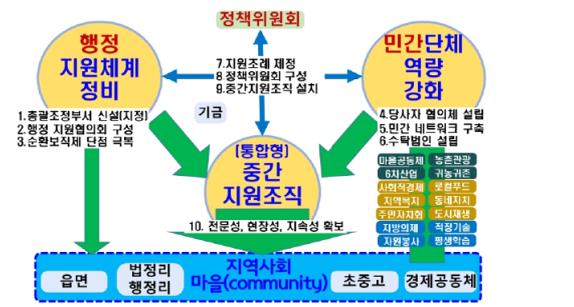
Copyright (c) 2016 by AgriX. All rights reserved.

10

문제2) 행정리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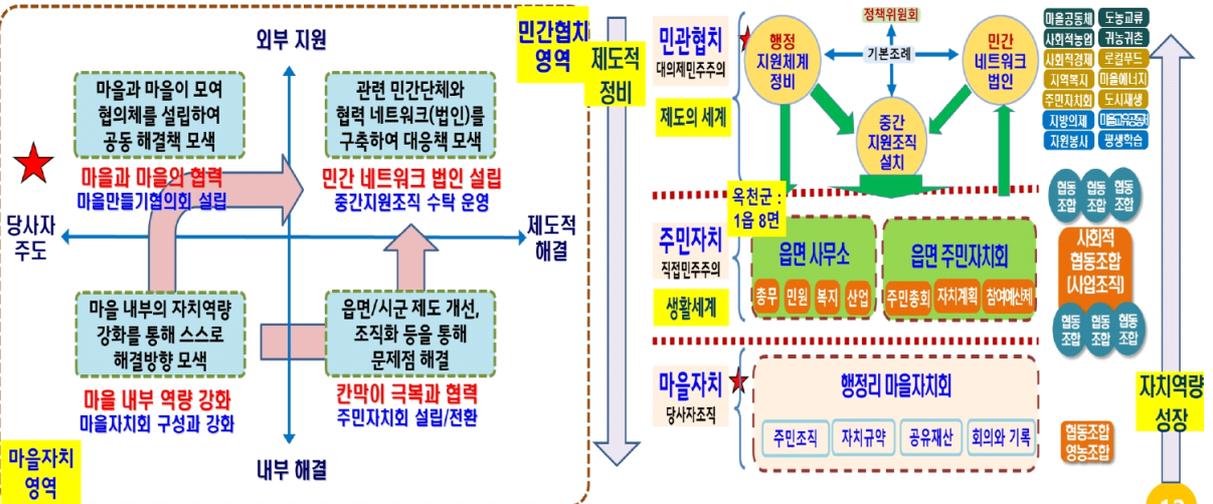
마을 (Village)

귀농귀촌, 평생학습, 지역자활, 창업공동체, 지역복지, 자원봉사,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약 5,500개 마을공동체

8시, 7군 24읍, 137면, 46동 123동, 1,970리 (법정동리) 1,177동, 4,300리 (행정통리)

문제3) 인구 격감과 초초고령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행정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조사업을 조금 지원한다 하여 풀릴 숙제가 아닌 셈이다.”

-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자치의 제도적 시스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 또 마을위원장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조직하고, 네트워크 법인도 설립하며,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이처럼 다양한 조직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점을 찾아갈 때 마을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싹틔줄처럼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야 농촌 전체도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의 고유 역할이기도 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농촌마을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3

[보완장치1] 마을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 행정정보조사업이 독(毒)이 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14



“행정사업의 관점과 방법론이 문제다”

◆ 행정사업(예산)을 통해 마을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 행정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기존 사업의 평가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신규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 행정사업의 **할 일**과 민간사업의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민간 활동에 **개입**하는 방법론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 사업지침은 시범사업을 거쳐 민과 관의 토론을 통해 확정하자.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15

2-2. 자치단체의 행정 사업 : 기본적인 관점과 역할, 사업 내용

관점과 방법론, 내용을 개선해야...

행정
사업

- 1) 마을에 대한 직접적 예산사업 지원 자제
- 2) 신규 행정사업의 발굴 관점 : **신규 사업 발굴 자제**
- 3) **사업 집행 방식의 개선** : 마을과 주민의 객관적 역량 존중

기본
관점

- 상향식 사업(소규모 프로젝트) 제안 중시
- 실천학습(Action Learning) 관점

광역
사업

- 1) **법,제도 정비 + 시범사업 + 시·군 조정과 자극(정책적 유도)**
- 2) **시·군 밀착 전문가 그룹, 민간 컨설팅 업체 육성 지원**
- 3) 주민교육(학습)용 교재/교구 개발
→ 워크숍 키트, 달력, 동화/만화/동영상, 학습자료 등

기초
사업

- 1) 소규모 실행사업 발굴과 집행 : **마을 사업 융복합**
- 2) **현장밀착형 마을 지원 시스템 구축**
- 3) 마을만들기의날, 축제, 사업단 등 **마을 협력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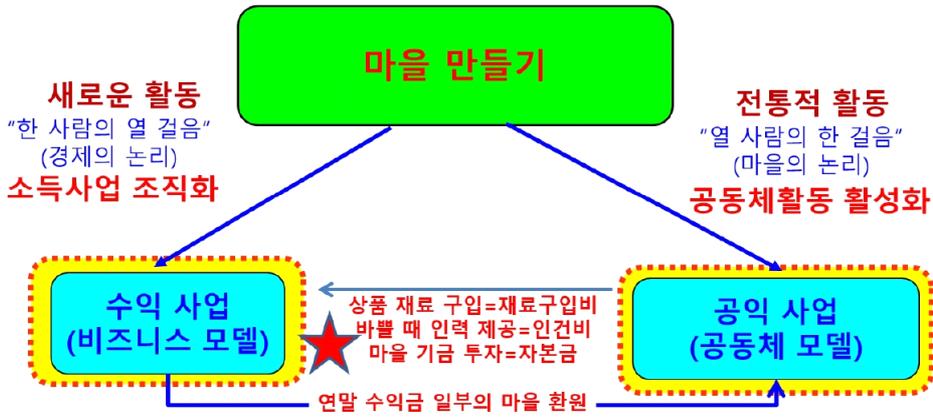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16

2-3. 마을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공모사업

공동체 사업과 경제사업은 명확히 구분하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한다.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 초고령화, 소득불균형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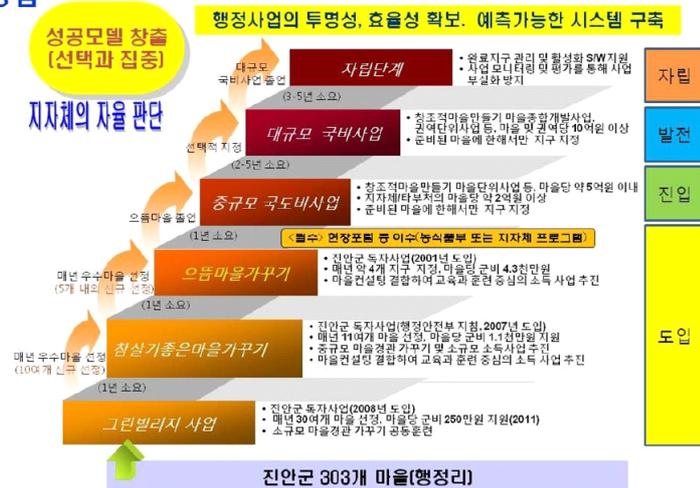
- 마을은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제조직이 아니다.
- 하지만 ...
- 공동체 사업과 수익 사업의 차이를 알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2-3. 기초 지자체 마을 단위 행정 사업의 정비 : '칸막이 행정' 의 극복

관련 사업의 연계, 단계적 지원이 중요!

사례) 진안군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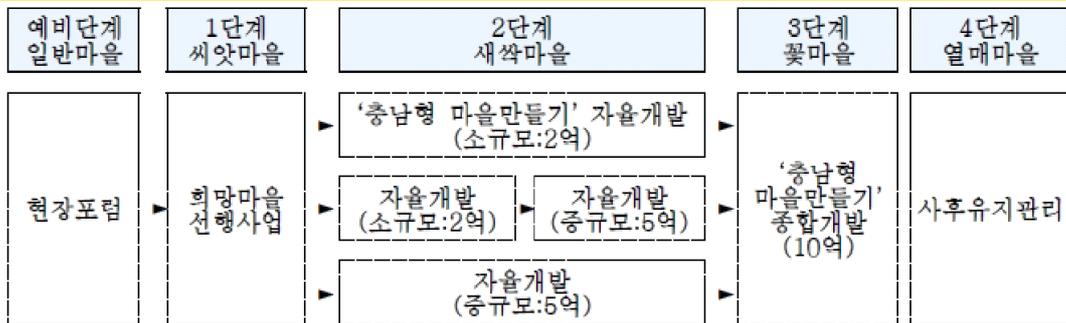
- ① 행정 전담부서 : 핵심사업(교육,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무국 역할 담당
- ② 사업체계 : 작은 사업을 통해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 훈련 축적(액션러닝)
- ③ 관련 사업 분야 : 마을공동체 + 경제/취미공동체(양대 축) & 사회적경제 등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충남 희망마을 제1기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2011~201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2022년)



19

충남형 소액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 도입(2015~)

2-1. 희망마을 선행사업 (개요)

“몸으로 하는 교육, 훈련” 강조

1. 사업취지 : 실천학습(액션러닝)

- 민선5기 희망마을 사업 아이디어의 실행 기회 제공
- 마을 주민간의 협동의지를 높이고 마을만들기의 동기 강화

2. 사업 신청자격 : 1단계 희망마을, 현장포럼 마을

- 2억원이상 국·도비 사업지구의 부활 제도 도입

3. 사업 신청유형 :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투트랙)

- * 경제공동체 - 일부 주민(5명이상)이 인근 단체와 협력하는 경제사업 (단, 소득의 일부 환원 등을 명시한 협정서와 주민총회 동의서 첨부)

4. 주요 사업내용 → 주민 공동의 합의 중시

- 2단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컨설팅 사업(사업비의 2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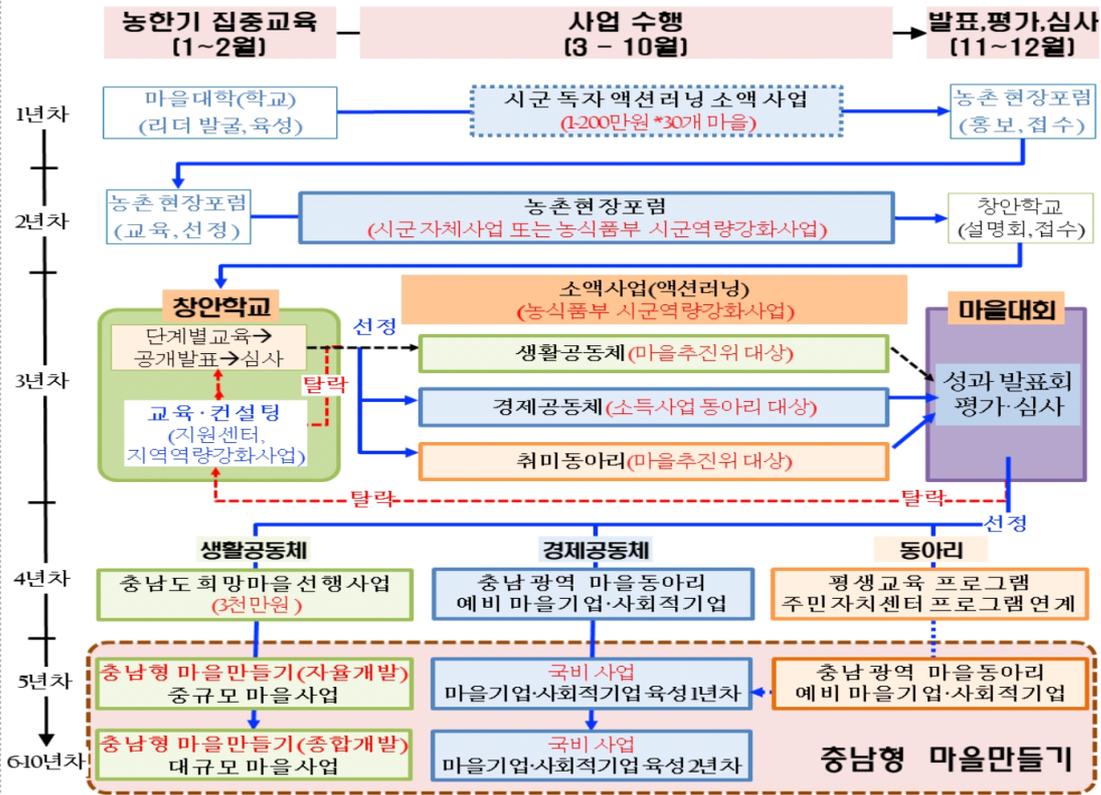
5. 2015년 사업 개요 → 2018년 일몰사업 검토(시군 자율 시행)

- 2015. 4~10월(8개월) → 2016년부터 조기 시행
- 70개 마을/ **마을당 30백만원** → 2016년부터 차등 지원 검토
- 천안시 4개, 계룡시 1개, 이외 5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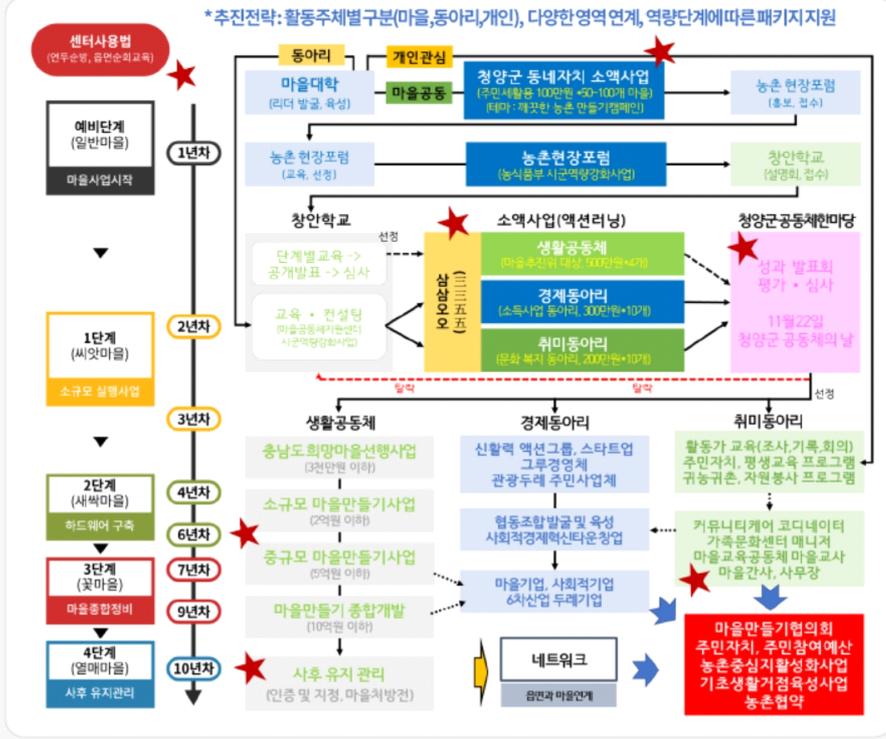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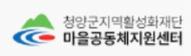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20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결합(제안)



함께이음 사업이음 - 역량단계별 주민교육과 공모사업 연계



- ### 연계사업
- 군 마을건강사진제막(기획감사실)
 - 군 경로당안내도우미운영(통합돌봄과)
 - 군 주민자치카카데미(농촌공동체과)
 - 군 우리마을주치의제(보건건강과)
 - 군 마을지원(농촌공동체과)
 - 군 청년커뮤니티원사업(미래전략과)
 - 군 농촌공동체(농촌공동체과)
 - 군 읍면공동체마을공동체(농촌공동체과)
 - 군 농어촌빈집정비사업(건설도시과)
 - 군 재활용동네마당실시(환경보존과)
 - 군 독거노인공동생활체(평생돌봄과)
 - 군 산림청그루경제체(산림축산과)
 - 군 행복교육지구사업(교육지원청)
 - 군 온종일돌봄확대(복지정책과)
 - 군 마을자치시스템구축(농촌공동체과)
 - 군 관광두레주력사업(문화체육관광과)
 - 군 산림휴양지유치(산림축산과)
 - 군 취약지역생물여건(건설도시과)
 - 군 도시재생뉴딜사업(건설도시과)
 - 군 사회적기업발굴육성(사회적경제과)
 - 군 동네자치특색사업(농촌공동체과)
 - 군 사회적농업활성화(농업정책과)
 - 군 주민자치회지원(농촌공동체과)
 - 군 공공일대주택사업(농촌공동체과)
 - 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과)

[보완장치2] 학습과 연계하는 공모사업 방법론

→ 공모사업 참여 자체가 학습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세련된 방식

방법1) 마을 사업 목록집 작성 및 제공, 읍면 순회설명회



01

1단계 이해하오

농촌협업 포럼

충남도 | 농촌협력과 | 담당자: 정영 | 이영희 | 전화번호: 1635-4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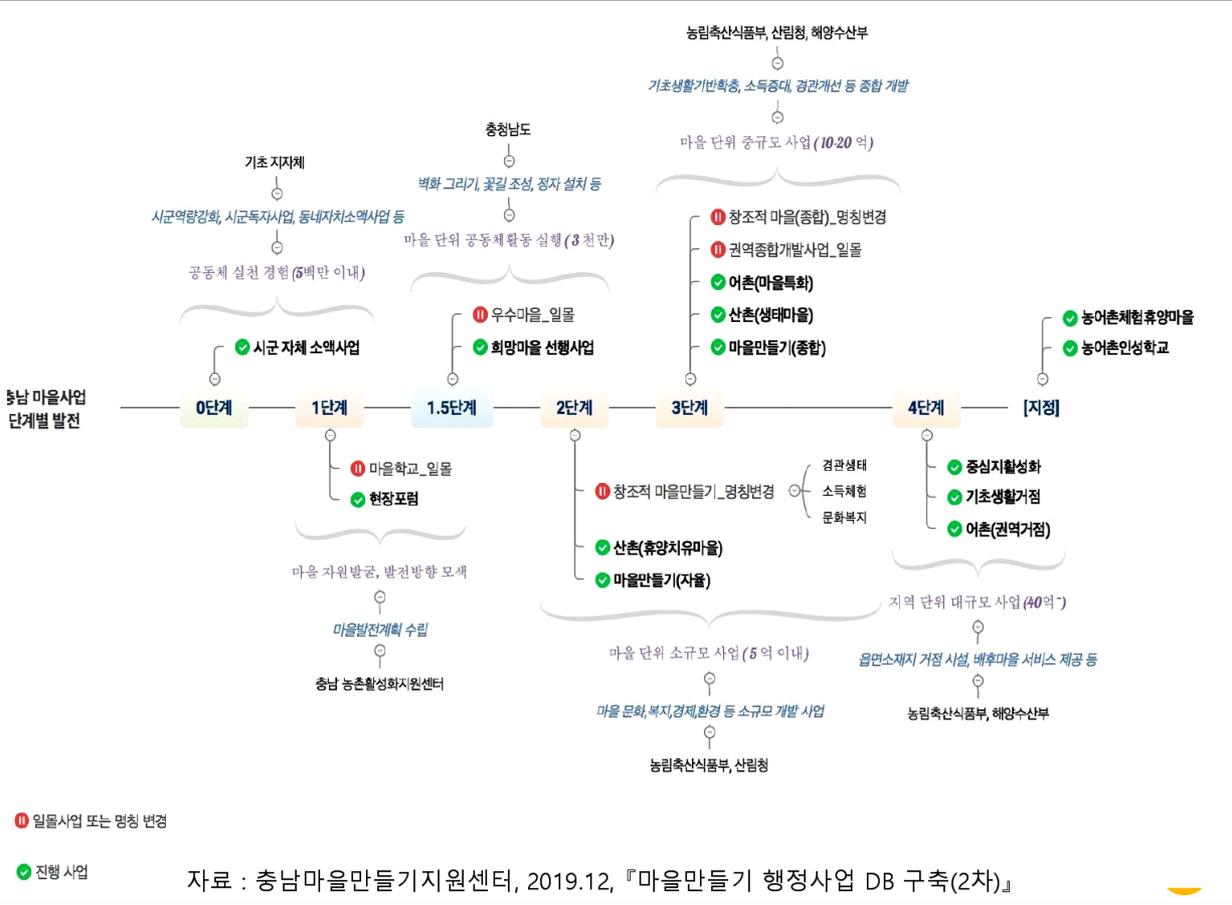
- 이런 마을에 본 사업을 추천합니다.
- 농촌협업포럼은 현장활동가-전문가의 도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차원을 찾아 역량을 발휘-선진성과 변화-과제를 발굴하여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협업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마을 실행은 ▲사업에 적합한 마을, ▲사업에 이해 및 시너지를 내는 마을, ▲사업실행 후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 ▲사업시행과정 중에 갈등 해결 등 집단 문제 해결이 필요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단계 제마을 단계에 해당하는 농·농사(농사) 및 농·농사(농사) 및 농·농사(농사) 등 공모사업은 농촌협업체 구성을 우선순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필히 포함하고 반드시 해당 마을 사업임을 밝혀드립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1년간(마을사업 종료 후 6개월)
사업규모	마을당 10억(마을사업) 30억(마을사업) 50억(마을사업) 60억(마을사업)
사업주관	농촌협업체(마을사업, 마을사업, 마을사업, 마을사업)
사업내용	1. 마을사업(마을사업) 2. 마을사업(마을사업) 3. 마을사업(마을사업) 4. 마을사업(마을사업)
선정방법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평가 선정(마을사업)
선정 또는 선정방법	선정방법: 마을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 마을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선정시기	매년 1-2월(마을사업) 마을사업(마을사업)
홍보방법	시군 공모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 마을사업(마을사업)

충남도 계획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계획	2020년 ~
마을 수	1,000(마을사업)	60(마을사업)	매년 60(마을사업) 내외
사업비	2,000(마을사업) 3,000(마을사업)	60(마을사업) 60(마을사업)	마을당 10(마을사업) 내외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참여 마을수 분석(2012-2019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지정	중복 제외 행정리수 (A)	1개 행정리당 사업수	전체 행정리 수 (B)	비율 (C=A/B)
합계	901	397	172	101	76	1,196	1.75	4,295	27.8%
천안시	49	28	2	0	4	68	1.99	427	15.9%
공주시	61	26	15	11	10	74	1.82	245	30.2%
보령시	58	30	15	7	4	83	2.02	235	35.3%
아산시	71	28	14	6	8	92	1.82	398	23.1%
서산시	61	31	8	9	2	71	1.66	265	26.8%
논산시	86	22	15	1	4	121	1.67	424	28.5%
계룡시	10	8	3	1	1	11	2.73	53	20.8%
당진시	54	18	3	3	3	62	1.55	221	28.1%
금산군	58	29	11	10	3	74	1.73	255	29.0%
부여군	79	29	19	10	5	102	1.61	433	23.6%
서천군	52	24	17	18	3	92	1.63	316	29.1%
청양군	58	29	14	1	6	72	1.68	183	39.3%
홍성군	71	29	15	13	13	107	1.58	342	31.3%
예산군	69	35	13	7	5	91	2.09	311	29.3%
태안군	64	31	8	4	5	76	1.59	187	40.6%

자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12,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 구축(2차)』

25

방법2) 창안학교 등 공동학습 기회의 충분한 제공

2-4. 공모사업 대상 마을/조직 선정방법론 개선 :
학습과 토론을 통한 주민 주도성의 강화

참가형 교육[학습]이 선행되어야...



- ① 기존 방식(a) : 공고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선정
- ② 개선된 방식(b) : 사업설명회 → (a) → 결과보고회 → 우수사례 추가지원
- ③ 학습 강화 방식(c) : 모집 → 사업설명회 → 공동학습과정 → 사업계획 발표 → 평가 및 선정 → 결과보고회 → 우수사례 추가지원

2015년 3농대학_마을만들기과정(4.16, 천안 상록리조트) 발표자료

26



지역창안대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제공 :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보완장치3] 마을자치 기본예산제(기금) 방식 도입 →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공성 인정,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

[제안6] 농민수당 연계, 마을공동체수당 도입 : 2022년 대선공약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지속 제안

- 도입취지와 목적: 농촌 마을의 다원적 역할 존중, 마을 공동체 활동 장려
- 기본방향: 시범사업 우선 시행
 - 행정리 마을 단위로 매년 소액 예산을 지속적 지원. 전제조건으로 주민조직도 정비, 마을규약 제정, 회계 및 기록관리 등 마을자치의 기본적인 시스템 정비 요구
 - 특정 읍면 대상의 공모 형식으로 도입하여 우선 시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이나 신규 도입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등과 연계하여 집중 검토
 - 1~2년 연속 시행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확산 모색. 전문연구자와 결합하여 참여관찰, 리빙랩 방식을 통해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선 반영
- 주요 사업내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시범도입
 - **자격 요건:** 마을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요구. 내용 수준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자극 제공. 대표성이 명확한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
 - **수당 액수:** 읍면 단위의 모든 행정리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300~500만원** 규모의 정액제로 지원. 마을 규모를 고려하면 주민의 자격, 위장전입, 면적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
 - **사용 분야:** 공모사업 방식의 보조금과 달리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고, **정산도 불필요**. 다만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성과 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방식으로 상호자극 유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웃 마을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 또 마을수당의 일부를 모든 마을이 모아 공동사업으로 추진 가능
 - **접근 방법:** 시범사업 성과를 모아 **행정과 민간이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면 단위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

국민총행복을 위한 농정대전환 3강·6략

비전	농정대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
슬로건	농어촌에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3대 강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으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먹을거리위기 대응 농어촌으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위기 대응 농어촌으로!</div> </div>
6대 방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5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6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div> </div>

핵심 정책과제

- 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직접지불 중심 농정대전환, 농어민 직접지원으로
1. 농정예산 전면조정으로 직불금 현 2.4조원 → 8조원으로
2. 농정예산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정상화
-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먹을거리 기본법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순환체계 구축
1. 국가지자체 먹을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추진 의무화
2. 기본 먹을거리 국내 자급력 강화와 식량주권 확보
3.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화와 취약계층 먹을거리 보장
농지는 **농민에게**, 걱정없는 생산지원, 지속가능한 주제육성
1. 농지 소유·이용 실태전수조사, 농지종량제 실시, 임차농 보호
2. 주요 농산물 생산비보장·계약제에 공급체계 구축
3. 가족농 중심 협동화와 농민가공 육성, 청년농어민 집중 육성
- 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 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지역소멸위험에 농어촌주민수당 월30만원씩 범부처 공동 대응
1. 범부처 예산조정 월30만원씩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수당>
2. 지역회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부 마을기금화로 마을 활성화
- 5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주민 기본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살기 편리하게
1. 마을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등 농어촌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2. 공공인대주택주택전면개량 농어촌 주거복지와 청년 주거 해결
- 6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읍면동 주민자치 부활과 협동경제 육성 및 민관협력농정 추진
1. 주민자치 권한예산 보장, 자립협동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2. 농수협개혁과 농어촌 사회적경제 육성
3. 국가지자체에서 민관협력형 위원회 제도로 협치농정 추진

□ (농어촌주민수당) 일인당 월 30만원 수준, 지역소멸위험에 범부처가 공동 대응

○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
- 절반은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 일부 마을공동체활성화기금 공동조성

□ (마을공동체 기본수당·활성화기금) 신설

○ 마을공동체 자율관리 수당(예산) 지급
- 시설유지관리, 경관환경 보전관리, 문화복지, 공동돌봄활동 등

□ (귀촌·귀농어 청년 수당)

<준비단계+ 정착단계> 수당 지급

○ 청년 취창업 지원체계, 청년조직 육성, 청년 주거수요 해결, 농지 장기저리임대(우선불하) 제도 등

[쟁점 토론] 공동학습, 토론, 합의를 통한 이해도 증가

→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 입장의 차이를 넘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 찾기

[쟁점1] 마을자치시스템은 행정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가, 결과인가?

- 첫째, 행정보조사업이 지원되기 이전에 마을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역량강화나 시스템 구축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보조사업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그래서 두 가지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마을자치 시스템을 행정보조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결과 혹은 긍정적인 수단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 지점이 있다. 역량단 계별 지원체계가 이런 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 행정보조사업이 지원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준비의 정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항상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특히 행정보조사업의 액수가 클수록 우려될 수밖에 없다.
- 역량강화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기에 마을자치 시스템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하는데,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과연 제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결국 두 관계는 상호작용하며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환경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쟁점2] 행정리 마을 단위 공모사업의 지원 개수와 규모 (액수), 내용은 적절한가?

- 둘째, 행정리 마을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지원규모(액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쟁점이 된다. 특히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려할 때
- 소액사업(300~500만원) → 현장포럼(1천만원) → 희망마을 선행사업(3천만원) →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2억원 혹은 5억원) → 종합개발(10억원)의 체계에서 **단계별 액수가 적절**한지는 점검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지원 개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은 적절한 경쟁률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도, 지나치게 낮은 경쟁률도 문제가 된다. 단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3~5:1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 물론 지원액수는 마을 역량이나 필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 **300~500만원 정도의 작은 사업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이의는 없을 것이다.
- 문제는 **5억원, 10억원 규모의 사업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적절한 규모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런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아주 특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정 개수를 많이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33

[쟁점3]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꼭 필요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 셋째,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도 기존의 공모 방식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방식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 더 논의해볼 지점들이 있다.
- 예를 들어,
 - 1)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에는 **거의 매년 보조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면서 마을 내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 또 마을에 하드웨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진입하자면 5년 이상** 걸리게 된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려 도중에 좌절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 3) 그리고 공모 방식에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기에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월반(越班)’** 방식도 인정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 4) 또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런 마을이 일상적으로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사업’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았기에 ‘작은 사업’ 기회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에 쟁점이 된다.

34

[쟁점4] 공모 사업의 진행절차에서 역량강화방식(창안대회)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

- 넷째, 행정보조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량강화방식(창안대회)을 제안하였다. 충남처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 하지만 지금도 중간지원조직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고, 가까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컨설팅 기관도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밀착하여 세련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있을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2) 물론 상근자의 기획 및 진행 역량은 충분한지, 강사로 섭외할 수 있는 인력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35

[쟁점5] 마을자치 기본예산제(마을기금) 방식은 정말 혁신적인가? 부작용은 없을까?

- 다섯째, 행정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혀 다른 대안의 하나로 마을자치 기본예산제(마을기금, 마을공동체수당) 방식을 제안하였다.
- 아직은 구상 수준이고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 그룹에서 제안한 정도에 불과하다.
- 1)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정하기 위해 또다시 공모방식으로 우선 시행해봐야 하는 숙제도 있다.
- 2) 과연 좋기만 한 제도인지,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예상해봐야 한다.
- 3) 또 시행방식이나 보완장치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이를 현재의 법률과 제도 체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
- 4) 민선8기의 신규 사업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입해보도록 제안할지 전략적인 설계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36

【2부】 발표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이해”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유형과 현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유형과 현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2022. 2. 25(금)

정 석 호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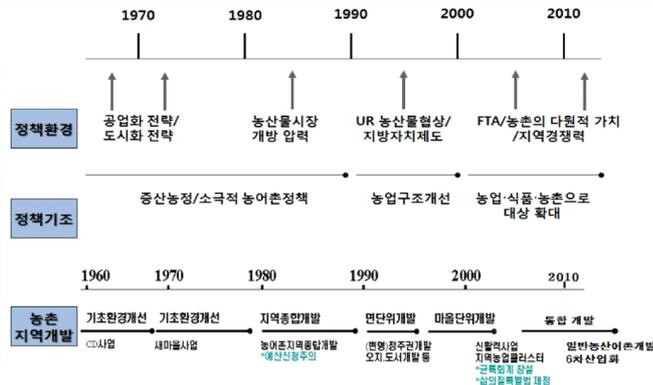
1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1 농촌개발 사업의 변화

연대별 농촌정책의 추진 방향

- 2000년 이전: 기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정부주도 하향식 개발, 물리적 시설 중심)
- 2000년대: 농촌의 다원적 기능증시와 상향식 개발(공모방식, 주민자율적 마을계획)
- 2010년대: 농촌개발 관련 통합적 개발, 주민 역량강화 바탕 상향식 내발적 발전
- 2020년대: 지자체·주민·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한 융복합 내발적 발전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자료: 심재현 외(2015). 제1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1 농촌개발 사업의 변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화

구분	2015년이전	2015년	2016~17년	2018년	2019년
읍면 단위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읍 100억 이하, 면 70억 이하)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80억 이하)	통합지구(120억 이하) 선도지구(80억 이하)	농촌중심지활성화 150억 이하 ± a
마을 단위	- 신규마을 조성 마을권역단위 종합 정비(50억 이하) 지역장의 아이디어 (20억원 이하)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창조적 마을만들기	일반지구(60억 이하)		기초생활거점 40억 이하 ± a
			종합개발(10억 이하)		마을 만들기
			공동문화·복지(5억이하)		
			경제(체험·소득) 체험:5억 이하, 소득: 2억 이하		
			환경(경관·생태)_5억이하		
신규마을		신규마을			
역량 강화	시군 역량강화 (5천만원 이하)	시군 역량강화(1.5억 이하)	시군 역량	시군 역량강화 (1.5억 이하)	시군 역량강화 (2억 이하)
기타					농촌다움복원(30억 이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2 농식품부와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지방이양전)

농식품부의 농촌개발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이유와 목적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구축 이유**
 - 2010년대 중반 권역사업의 **예산 낭비** 여론에 대한 해결 방안 대두
 - 마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물 중심의 사업 진행과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해결 필요
 - 농촌대상 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 필요
- **2016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목적**
 - 주민참여형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마을의 지역역량단계 사업 진행 후 대규모 사업 진행
: 현장포럼의 교육 내용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 유도
 - 사업별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
 - 사업진행 단계별 점검 및 맞춤형 사후관리 연계 지원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2 농식품부와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지방이양전)

마을단위의 역량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 기존 농식품부사업과 지자체 마을단위 사업 연계 역량단계별 지원



※ 농식품부 대응 충남 희망마을 사업의 역량단계별 발전전략(2020년 진행 사업까지)



5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2 농식품부와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지방이양전)

마을단위의 역량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내용

- (예비단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역량을 함양
 - 현장포럼 및 지자체 자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소액사업(1천만원 이하)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
- (진입단계)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5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마을단위 문화 복지 경관 사업 등)을 지원
 -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사업은 소규모(2억원 이하)만 가능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종합개발사업 지원
 - 중규모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을 평가해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농식품부)
- (자립단계)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

6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2 농식품부와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지방이양전)

지방이양 이유 및 추진 방향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중 사무이양 이유 및 현황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등 거점 조성과 관련된 사업 중지
 -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판단된 마을만들기사업(내역사업 포함)은 지방으로 이양 결정
 - 사무이양 방향
 - 이양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거 지방사무로 규정
 - 이양된 사업의 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으로 이전 예정
- *충남도 '20년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부가가치세의 11%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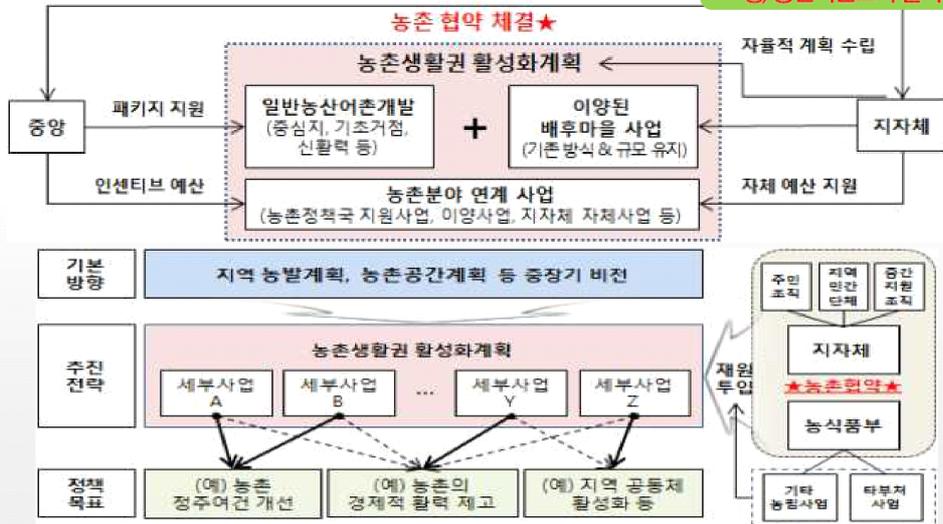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3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의 이양(1단계)

[농촌협약] 중앙정부 사무이양 + 지자체 주도성 강화

→ 지자체의 계획역량과(통합형) 중간지원조직설치요구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4 지방이양에 대한 충남의 마을단위 사업 대응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개념 도입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도(道)차원 대응
 -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등 자치분권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관협치 기반 시군 자율성 강화
 - 시군 행정 및 민간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한 '충남형'의 특색 있는 사업 모델 도출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의 안정된 정착과 확장

- 마을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유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 현장포럼(마을자치·사업 기반마련 변경 유도)-선행사업-소규모·중규모-대규모-사후관리
- 광역 및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대와 현장밀착성 강화
 - 광역 센터 :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의 융복합 시책 개발, 조사분석과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시군 센터 : 참여마을 확대 활동 강화, 초기 사업부터 직접 시행을 통해 실행 역량 강화

1. 마을단위 사업의 변화

4 지방이양에 대한 충남의 마을단위 사업 대응

충남형 마을단위 역량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지방이양 전



• 지방이양 후(2021년)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1 예비단계(일반마을): 현장포럼

농촌 현장포럼(2013년 시작): 지방이양전 내용

• 농촌 현장포럼(2013년 시작)

- 목적 : 주민 주도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발굴·진단하여 마을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체 중심의 협의 프로그램**
- 방향 :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교육을 통한 사업주진 기초역량 확보
 - 마을역량진단, 사업주진조직 구성
 - 마을의 비전을 담은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 주진 방법 : 표준 프로세스를 토대로 퍼실리테이션·강의·권설팅 등을 연계 마을·권역 단위 단계(유형)별로 4~5회차 실시
 - 표준 프로세스 : (1차) 주민교육 → (2차) 마을테마설정 → (3차) 선진지견학 → (4차) 발전과제 발굴 → (5차) 발전과제심화

*충남은 2회분 추가 지원하여 총 7차로 진행

•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을 통한 경험 축적 : 2016년부터 시군역량강화사업 활용(권고)

11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1 예비단계(일반마을): 현장포럼

농촌 현장포럼의 성과와 과제

• 농촌 현장포럼 성과

- 농촌다움 보존
 - 마을의 농촌다움 보존 인식을 가지고, 꽃길 조성 등 마을을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
- 공동체성 회복
 - 포럼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간 갈등 완화, 마을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실천
- 마을발전 방향제시
 - 주민주도적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주진계획 제시 및 참여도 증진

• 농촌 현장포럼 과제

- 농번기에 정형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장시간 진행에 따른 집중저하
 - 마을의 현황과 역량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문가 중심 포럼, 비슷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 중간지원조직 참여, 창안학교 운영을 통한 계획서 수정 필요

12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1 예비단계(일반마을): 현장포럼

현장포럼 과제 해결 및 지속적인 추진방안(안)

• 사전·사후 현장포럼의 용어 구분

- (사전)현장포럼 : 신규 마을의 마을발전 방향 설계를 위한 조직·규약 정비, 발전계획서 수립
- (사후)현장포럼 : 사업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현장포럼 내용 변경 제안

- 마을자치시스템 구축(마을조직도, 규약정비, 회계·기록관리 등)과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현실화 도모(마을독본을 교재로 사용)
- 총 5회차 사업(안)
 - 마을 주민조직과 규약 등 마을자치 기반조성(2회)
 - 마을자원의 이해 및 마을자원찾기(2회)
 - 마을발전계획 수립(1회)

13

[참고]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 비치, 투명한 회계

1 마을 공동재산 관리방향의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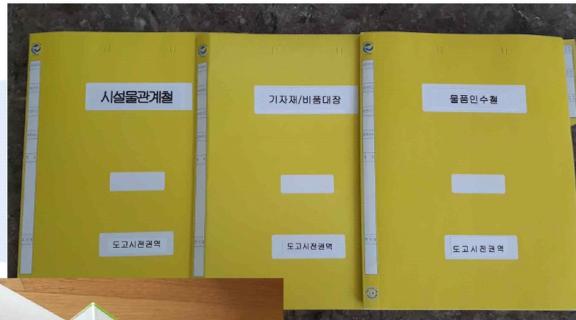
마을 공동재산

마을 공동재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마을 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공동재산 관리대장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행정에서 관리대장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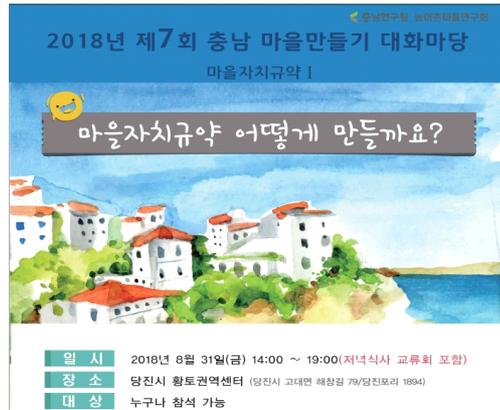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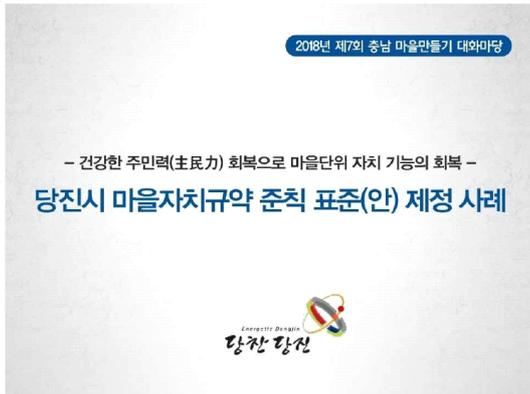


↑ 아산시 도고면
시전권역
공동재산관리대장

← 홍성군 홍동면
반교마을
공동재산관리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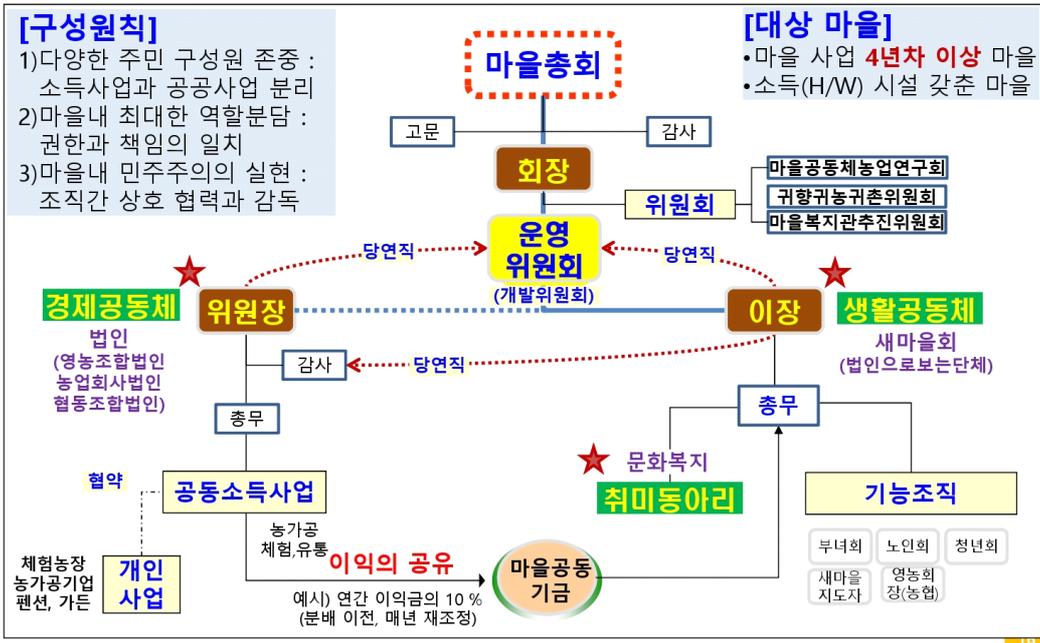
14

[참고] **마을규약 정비, 체계적인 기록관리, 인수인계**



[참고] 주민주도 강화를 위한 **마을 주민조직체계 점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마을"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2 1단계(씨앗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2022년 변경내용)

희망마을 선행사업 개요

• 기본 개념

- 「마을 기획·단합·실천 프로젝트」: 현장포럼에서 습득한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주진 역량(마을조직도·규약 정비,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소규모 사업을 통해 실천하는 사업(Action Learning)

• 사업비

- 마을당 30백만원 이내(사업비 30%이내 컨설팅비용 필수)
- 민간자본사업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 지원범위

- 기존에 마을계획수립시 발굴된 아이디어의 심화, 실행 사업 실천 사업
- 마을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마을의 사회·경제·문화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
- 주민회의, 교육, 선진지 견학, 재료구입 및 시범사업비, 판로확보 조사비, 기술연구비, 인세비, 테스트장비구입비, 시설장비비(토지구입제외) 등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17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2 1단계(씨앗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2022년 변경내용)

희망마을 선행사업 예시와 사업 주체

• 세부사업별 내용 예시

- 마을경관: 마을회관 주변 꽃길조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경관 훼손 대상물 변경·처리 사업, 폐가 정비, 작은 소공원 조성 등
- 마을 역사 복원사업: 마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계승발전 사업 중심 추진(마을 옛날 사진·유물 수집과 스토리텔링 개발, 작은 박물관 조성, 옛 우물가 복원 등)
- 문화·예술 체험활동: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민 복지 및 문화사업: 주민 복지향상 목적 사업(목공예 학교운영, 마을밴드구성·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기타: 신재생에너지 순환마을, 귀농·귀촌 활성화 계획(귀농의 집 정비, 홍보, 유치계획 등), 소득사업 활동 기반마련,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기반 마련

• 사업주체

- 마을공동체: 희망마을·현장포럼 이수 마을 중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마을발전계획 우수 마을
- 경제공동체: 경제·문화·복지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체 및 단체(법인화 전제, 일부가 모여 진행시 소득 일부 환원 전제)
- 마을+경제공동체: 마을과 경제공동체(단체)가 연합하는 형태 사업추진도 가능

18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3 2단계(새싹마을)·3단계(꽃마을) 사업의 특성

지방이양전 농식품부 사업과 비교

구분	농식품부 기존 지침	충남형 마을만들기	농식품부 기존지침과 비교
신청 자격	· 1개 행정리로 국한 · '10가구 이상' 조직만 인정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미흡 (소액사업) · 해수부 관할 마을 불인정	· '종합개발'은 단일마을 및 마을협력 (2~4개 행정리 연계) ·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되 마을협약 강화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해수부 관할 인정(해수부 사업 추진 및 완 료마을제외)	· 고령화 상황 반영하여 작은 행정리 한계 극복 · 사전준비단계 사업의 지속과 현실화
개소당 지원액	· 5억원(자율), 10억원(중합)으로 소규모 사업 없음	· 2억원(자율개발, 소규모) 신설로 행정리 마을 현실 반영, 사후관리사업 지원	· 다수 마을 기회 제공 · 선행사업 연계 강화
사업내용	· 획일화된 기능별 사업 · 마을의 추진의지 중심	· 시군 자율성 강화와 지속성을 위한 기능별 사업 확대와 사회적경제 유도 · 마을 추진의지(마을자치시스템구축, 자체 사업 추진등)와 시군 지원체계 구축 강화	· 사업의 양보다 질 중심 · 지속성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강화
사무장	· 사무장 활동비 없음	· 사무장 활동비 인정(종합개발만 시범 시행) · 1년차부터 집행 가능	· 현장 활동가 중시 · 농촌 현실 반영
중간지원 조직	· 컨설팅 기관 의존, 중간지원 조직 명시 없음	· 중간지원조직 역할 명시 (사전교육, 심사, 사후관리 등)	· 충남의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 구축 경험 확장
역량강화 사업	· 기본계획 승인 후에 집행 · 컨설팅 기관 의존	· 1년차부터 역량강화 집행 가능 ·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조	· 주민조직 등 '기본과 기초' 중시
계획 수립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분리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원칙	· 사업신청서 강조 · 주민주도 계획 강화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3 2단계(새싹마을)·3단계(꽃마을) 사업의 특성

기능별 사업의 특성

- 기능별 사업 현황: ①~④(내용은 비슷하나 H/W 중심 탈피), ⑤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신설
- ⑤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주요 예시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정책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 권장: 빈집 정비와 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귀농·귀촌·귀향 유도), 폐선(폐광)·터널 활용 마을 공동 소득사업단 설립,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법인 설립,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유희시설 활용 청년창업공간 제공, 마을가꾸기 및 경관환경정비 사업단 설립 등
 - 로컬푸드, 6차산업, 사회적농업 등 마을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읍면소재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마을복지 서비스' 구축
 - 2~4개 마을 협력의 '작은 거점' 기능 수행 중심시설 기반의 마을 연계 프로그램 사업
 -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 초고령화 시대 대응 마을공동체복지, 마을공동체농업, 마을후계자 육성 등 프로그램 사업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3 2단계(새싹마을)·3단계(꽃마을) 사업의 특성

마을 및 시군의 사업 추진의지 강화

• 마을과 주민의 추진의지

- 마을사업 추진 기반구축(마을조직도 작성, 마을규약 정비, 회계 교육 등)과 마을의 사전 활동(자체 소액사업 실시, 마을만들기협의회 가입 등),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추진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20% 이상)

•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

- 시·군 전담부서, 행정지원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형태

•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주체 간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

- 조례상 정책위원회(마을만들기위원회) 등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사업 발굴 및 도출 과정

21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3 2단계(새싹마을)·3단계(꽃마을) 사업의 특성

마을 및 시군의 사업 추진의지 강화

•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작성 유의사항

- 다목적회관, 복합복지센터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중·개축 포함) 원칙 신축금지(특히 마을회관)
-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계획 수립 : 시군의 행정·민간 단체(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와 마을내 조직 연계, 마을내 유지관리 조직 구성(법인 설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 사업유형별 사업구성 방향(권장사항)

- 기능별 사업은 총 3개 이상 구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2개 의무) (택 1개 이상)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사업은 총사업비 20% 이상 의무
- 자율개발(소규모)는 기능별 사업 3개, 자율개발(중규모)와 종합개발은 3개 이상
※ 종합개발 중 마을협력의 경우 해당마을 전체에 대한 현황 전부 기술

22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4 읍면단위사업내 배후마을 관련 부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특성

• 농촌중심지활성화

- 사업 추진방향
 -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
 - 도로정비 등 H/W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체감도를 고려한 S/W 확대 추진
 - 사업대상 : 읍면 소재지(1,2계층에 한함)
- 사업비 : 150억원 \pm α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 사업비는 중심성 지수 및 배후마을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개별 사업별로 조정 가능
 - * 시군청소재 읍, 他중심지 연계시 + 30억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실행방안 제시)
 - *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개설)시 + 10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 포함시 + 50억원
-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사업내용
 -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배후마을도 함께 지원)
- 사업비 10% 이상 전달 프로그램(S/W) 의무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내용과 특성

4 읍면단위사업내 배후마을 관련 부분

기초생활거점사업의 특성

• 기초생활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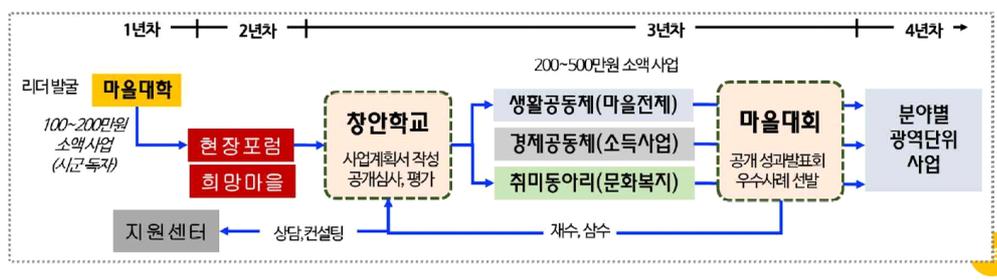
- 사업 추진방향
 - 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
- 사업대상 : 읍면 소재지(1,2계층 외에 한함), 또는 이외의 지역 거점 신청 가능
- 사업비 : 40억원 + α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사업을 추진 시 + 최대 20억 추가 사업 가능
 - *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에 한해 2단계 사업부터 신청 가능(최대 20억)
- 사업기간 : 5년 이내(1단계)+ α (2단계) 자율(거점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 사업내용
 - 상위 서비스 거점인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체계 구축
- 사업비 10% 이상 전달 프로그램(S/W)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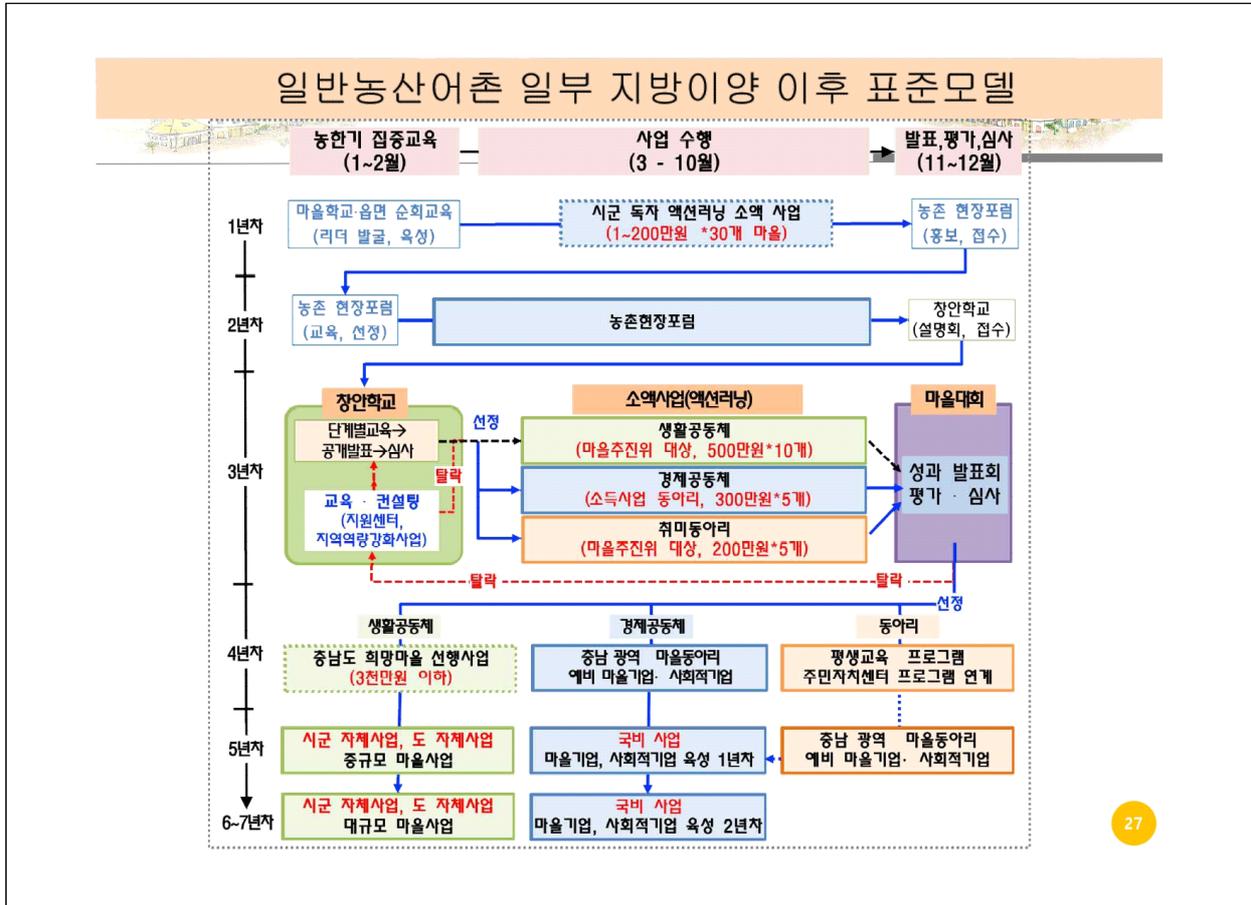
[참고] 중심거점 ⇨ 하위거점 ⇨ 배후마을 간 연계 예시



3. 주민 교육과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결합

- 예측 가능한 사업 교육과 사업연계 추진
- 예비단계의 유사 사업 명칭 및 선정 방식 재정립 필요
 - 신규마을발굴 사업 통일: 마을대학, 찾아가는 학교 등 기존 기초 교육의 통합 운영
 - 현장포럼: 행정 자체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활용 진행 지속 여부(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유사사업의 세분화 지양 및 재정립: 소액사업과 동아리 관련사업, 마을홍보 관련 사업
 - 선정방식 통일 : 개별사업 선정에서 통합된 창안학교 도입
 - ※시군역량강화사업중 지방이양 마을단위 사업 20% 이내 유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체계 정비
 - 마을대학 - 소액사업 - 현장포럼 - 선행사업 - 소규모·중규모 - 대규모 - 사후관리





제1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3부】 종합토론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 ‘독’인가? ‘약’인가?”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쟁점토론자: 발표자, 지정토론자
 - * 지정토론자: 권영진 회장(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이상환 팀장(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사업팀)
이재범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주요 쟁점(예시)
 - * 마을만들기 이해관계자별 행정정보조사사업의 관점과 역할
 - *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 방향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와 공모사업 사업량, 사업 진행 절차 등)
 - *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연계 필요성과 방안

행정보조사업 수행 경험 마을리더 간담회 결과 정리

권영진 회장(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간단한 소개	
권영진 회장(보령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보령시 청라면 은고개마을 위원장.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이면서 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위원장을 2013년에 맡게 됨. 현재까지 위원장을 맡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발표 경험을 갖고 현재까지 하고 있음. 보령시 은고개마을은 농식품부와 충남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맞춰 마을 사업을 진행함.
유진돈 회장(아산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시전권역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장, 아산시푸드플랜 먹거리 위원. 아산시 시정권역은 희망마을 사업 진행 이후 2013년 농식품부 마을권역단위 사업을 진행함
신웅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	예산군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대륜리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마을사업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음. 예산군 대륜리는 지방이양 이후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을 진행함
토론1	사업의 진행 과정, 경험
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2012년 희망마을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8천만원을 지원받아 마을의 개인소득이 아닌 마을 복지(노후복지)에 쓸 수 있는 사업을 해보려고 진행함. 마을에 유희공간이 많았는데 쓰지 않으니까 지저분해졌음. 이곳에 뽕나무를 심어 복지자금으로 쓰는 사업을 하자 시작했음. 두 번째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2014년에 시에서 저희 마을이 열심히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2차 뽕나무 단지 조성을 위한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줬음(시 자체 예산). 경관 조성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 또 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권유하여 2015년도에 5억 사업비를 도전함. 소득체험 방향을 잡아 2018년도에 완료하였음. 그 이후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안학교 사업을 통해 400만원 소액사업을 수행하여 마을 광장을 만들었음(벤치, 탁자 등).

<p>유진돈 회장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2015년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시작하였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1.5억, 농작업안전장비 사업으로 5천만원 받음. 이것을 기초로하여 주민들이 단합이 되면서 2013년 권역종합개발 사업을 43억 3천만원을 받아 그중에 7억을 가지고 장류공장(간장, 된장, 고추장)을 설립하여 납품중임. 이때 당시 생각이 계속 보조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음. 그 이외에는 마을 경관사업(저수지 둘레길, 등산로 등)을 진행하여 2016년에 마무리함. 중간에 보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6차 산업에 신청을 하여 2014년도에 10억을 선정 받아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첫째 교육이 되어야 해서 매년 천만원씩 지원받아 마을재산관리, 마을규약을 만드는데 아산시 마을리더를 모아 3년째 교육하고 있음. 현재 농촌협약사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35명)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음</p>
<p>신웅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p>	<p>2018년도 마을기업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청년의 분야가 결집 되어 조성되었음. 28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함. 첫째, 가장 먼저 설립하고 역량강화 교육은 좀 일부 군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하였음.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주로 2018~2019년도 2년에 걸쳐 소액사업을 많이 하였음. 이것을 통하여 동아리사업으로 웅세민 농업팀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음. 우리 마을은 특히 원주민보다 귀농귀촌인이 더 많음. 2019년도에 예산센터에서 마을 축제사업 신청받아 마을 축제 기금 500만원 통해 강강수월래 축제를 성대하게 치러 인근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를 했음. 또한 마을 내 농산물집하장이었던 있던 창고를 예산군에서 유희시설 관련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년간 방치되어있던 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였음. 2019년 말에는 현장포럼이 끝나고 희망마을선행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중간 경관사업 및 마을지 작성을 진행해봄. 한 600여명이 제작을 해서 잘 마치게 되었고, 이후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10억)이 선정되어 현재 경관 사업과 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p>

토론2	보조사업 신청 경위 및 자발적 참여 여부
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님. 2012년에 참여를 하였는데, 전 이장님 시절 마을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개인에게 혜택이 오는가 싶어서 시작함. 그때 당시 저는 퇴직 전이어서 서류만 정리해주는 간사 역할만 하였음. 그러다 2013년 보령시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 참가해달라고 해서 시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음. 다음 5억 사업도 마찬가지였음. 보령에서는 공모사업이 될 만한 마을에 찾아가 선택한 케이스임.
유진돈 회장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	아산시도 보령시와 같은 케이스임. 어찌다 보니 설명회 때 참여하여 듣게 되었고, 부여에서 한 3농 혁신대학을 참여하게 되었음. 참석하여 듣다 보니, 마을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것을 계기로 마을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음. 설립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수입을 올리다 보니 주민끼리 단결이 되었음.
신용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	우리 마을의 동기는 맑은누리센터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음. 갈등이 심해서 수년간 마을이 잠자고 있었음. 2017년 제가 마을 청년회 사무국장을 맡고 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정확한 동기는 청년회와 부녀회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난 이후임. 40~50명이 선진지견학을 같이 다녀왔는데, 마을 분들이 뭔가 해보자 하여 시작하게 됨.
토론3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애로사항
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p>계속된 리더가 이끌어 가야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음.</p> <p>사업 진행 과정부터 보면 처음 5천만원, 8천만원 사업 할 때는 회의 진행하는데 마을분들이 소득사업은 반대를 하였음. 그래서 노후복지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부 참여가 되었음. 이후 5억 사업에는 주민들은 왜 컨설팅업체에 비용을 주고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 하였음. 주민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생각함. 위원장으로 제가 개인의 아이디어를 냈고 총회에서 무난하게 가게 되었음.</p> <p>하드웨어 사업으로 건물 공사를 진행 하는 데에 있어 부지, 건축 등의 법적 문제를 잘 확인해야함. 우리는 도농교류센터를 지으려고 예정해 놓은 땅이 실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니 지을 수 없다고 하여 당황했던 적이 있음.</p> <p>사업을 진행할 때 비협조적인 분들이 20%정도인데, 그 외 80%의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면 극복할 수 있음.</p>

<p>유진돈 회장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해오고 5개월 동안 1주일에 1회씩 회의를 하였음. 결과적으로 단합이 되고 소득이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하다 보니 마을끼리 자꾸 부딪치게 되었음. 양보를 하면서 진행함.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마을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마을 분들이 투자를 잘 안함.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 보름만에 투자비용이 들어왔음. 사업은 문제없이 해결해나가고 있음. 하지만 리더 혼자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 외로운 점이 있음.</p> <p>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같은 사람이 이장직과 위원장직을 겸하면 그 전 사업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의해 사업이 접힐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장과 위원장 역할이 달라야함.</p>
<p>신용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p>	<p>모든 사업들을 영농조합 회의를 통해 준비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음. 또 하나는 전임이장님들의 사업의지가 없는 것임. 같이 협력해주면 앞서나가는 사람들이 힘이 날 텐데, 다행히 우리 마을 전 이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어서 힘이 났었음. 제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이장과 위원장을 병행하고 있는 것임. 아산 유진돈 회장의 말을 깨닫고 있음. 처음에는 전 이장님도 제가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서 싸우고 그랬었음. 사업에 주민 분들을 참여시키려면 이장을 겸임해야 했음.</p>
<p>토론4</p>	<p>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유는?</p>
<p>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뽕나무 단지를 만들어 노후 복지에 사용하려고 하였음. 왜 실패하였냐면 처음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하고 출자금을 얼마씩 걷자 하면서 결의하여 시작하였음. 하지만 마을에 오래된 분들끼리 따로 만났을 때 이전 부녀회장님이 위원장이 출자금을 내면 돈 많이 벌 거다 하면서 도와주셨던 것임. 이게 나중에 불어터졌었음. 기대했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실망한 것임. 처음 2-3년까지는 뽕나무를 같이 심고 했었는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되었음.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져서 결국 위원장 몫으로 돌아감. 위원장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고, 관리할 사람도 구해서 인건비도 줘야하는 실정임. 단지는 형성되어있고 운영은 되지만 공동체 측면에서 실패함.</p>

<p>유진돈 회장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실패라기보다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음. 우리마을이 식품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식품 쪽은 전혀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뛰어드니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음. 역할분담도 안되고 할 일도 너무 많음. 또 마을사업이다 보니 지출도 줄여야하고, 마을에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도 없어서 위원장 직접 다 해야하는 실정이었음. 그래도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듦.</p>
<p>신용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p>	<p>모든 마을들이 비슷한 것 같음. 공동체로 움직이는 사업이면 함께 해야하는데, 본인들 일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하는 일들이 많음.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데 여기서 또 불만이 나옴.</p>
<p>토론5</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보조사업 현재와 같이 가도 괜찮은가? 문제점은 무엇인가?</p>
<p>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보조사업이 단계별로 충남형으로 잡은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함. 없어진 권역사업은 별로였음. 그리고 하나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분은 장려해야 할 내용임. 협의회 입장에서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협의회 가입 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니 호응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물론 협의회 가입하지 않은 마을이 불만이 있겠지만 계속 장려를 해야 함. 단계별 사업 시 10억 사업을 보면 2개밖에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 발전이 될 수 있는 마을이면 당장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추천으로 해보라는 식은 안 됨. 그리고 같은 마을이 계속해서 예산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마을들이 생각하기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모니터링 평가제가 필요함. 제3자가 마을에 10억 사업을 선정했을 때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사업의 효율성이라 던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 특히 하드웨어사업의 경우 제일 필요함. 건물 조성을 할 때 유지관리비 문제 등을 생각해야함. 대안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게 되면 운영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받고 모니터링 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p> <p>그 외 선행 사업이 끝나고 바로 2억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금액차이가 큼.</p> <p>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관련된 책자를 만들게 되는데, 완료한 이후에는 기록한 책자가 없음.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충남형 만큼은 마을위원장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으면 함. 마을을 위한 활동, 봉사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수당도 지급해야함.</p>

<p>유진돈 회장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현장포럼 기초 단계가 예산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으로 상향시켜주면 좋겠음. 시골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교육도 중요한데, 활동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 견학을 좀 많이 가봤으면 좋겠음. 선진지견학을 가서 동기부여를 받게 됨. 보고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비용이 적다보니 기간도 짧아지고 한참 배우려고 하면 끝나게 됨.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됨.</p> <p>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나 서류를 잘 해오는 마을은 실제 잘 안되어있고, 실제 잘 하고 있는 마을은 서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게 문제인 것 같음.</p>
<p>신웅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p>	<p>5억이든 10억 사이든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을에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마을리더나 마을이장이나 위원장의 할 의지, 주민들의 의지 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것도 역량강화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사업의 방향성 등이 저해될 수 있음. 저희 마을도 3-4년에 걸쳐 지금 5억 사업까지 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p> <p>운영관련 내용에 경관사업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마을은 올해부터 담당제를 시작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비용을 줌.</p> <p>마을 주민들이 행정처리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임. 이게 한계점인데, 서류를 좀 완화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해봄.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잘 짜는 사람한테만 계속 가게 됨. 따라서 다른 마을은 접근을 못하게 됨.</p>
<p>기타</p>	<p>사업계획서 관련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도움을 주는 사업 등을 구상해볼 수 있음.</p>

토론6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의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p>권영진 회장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p>	<p>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는 같이 가는 건데, 면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공존하는데, 이게 마을단위, 리 단위로 들어와도 같은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음. 그럼 결국 이장님, 위원장님 활동했던 분들이 마을 자치위원으로 들어가게 됨. 그렇다면 행정보조사업을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임.</p> <p>마을만들기와 마을자치가 연계 필요성이 있는데, 연계를 하려면 또 교육이 필요함.</p> <p>정리: 1단계는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 연계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계교육이 분명히 있어야함. 마을단위 교육 → 면 단위 교육.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 전혀 모름. 2단계는 사업비 등의 연계를 해야함.</p> <p>이것을 위한 회의 등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럴 때 마을기금이 필요한 것임. 이런 목적성에서 예산을 쥐야지 또 마을통장으로 가버리면 관광을 가네, 먹어 버리네 라는 이야기가 나옴. 통장을 분리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함.</p>
<p>신웅균 회장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p>	<p>마을리더에 이장과 위원장이 둘로 나누어져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의 직급이 공통작업으로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융합하기가 참 어려움. 마을 사업을 하려면 이장이 필요함.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어버리는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야하는 부분임. 또 하나는 주민들의 사고력, 의지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규약은 18년도에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키는 쪽은 지키고 안 지키는 쪽은 관례대로 가자고 하여 상충됨.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될 것 같음.</p> <p>우리마을에는 조직이 많은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맑은누리센터의 기금을 관리하는 협의체인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쪽의 승인이 필요함.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p> <p>여러 조직들이 있고 공존해서 가는데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완력싸움이 생김. 그렇다고 서로가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려움.</p>

<p>토론종합</p>	<p>행정보조사업은 마을리더 입장에서 보면 수년간 무임금, 희생으로 사명감, 보람 정신의 지도자가 많지 아니면 실패한다.</p> <p>겉으로의 찬란한 모습 뒤에는 국가행정 보조사업이 마을발전을 도와주기위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1년에서 길게는 10년간의 사업수행기간 동안 마을주민과 갈등, 인원동원, 교육수행, 사업계획서작성, 정산보고서, 의심, 시기 질투 속에 시달려야 한다.</p> <p>주민, 마을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좋지만 땀 흘린 자의 낙오 없이 이어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표창으로 걸 치레를 하기보다 박수보다 늘 격려의 보약이 필요한 처방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p> <p>행정 보조사업은 약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방법과 시행에서 진정 주민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이 필요하고 소액이든 중규모든 모든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필수적일 10%이상 책정하고 모니터링을 한 후 다음단계 사업이 주어져야 한다.</p> <p>건강한 행정보조사업은 민주사회, 자치시대를 앞당기는 길속에서 우수한 컨설팅은 필요하나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현장교육의 내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 중규모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사업을 섞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사업 종료 후 보존경비, 운영경비 조달이 안 되는 마을 계획은 가차 없이 지원 하면 안 된다. 갈등의 불씨로 마을은 새로운 전쟁으로 애꿎은 보조사업만 힘들어 진다.</p> <p>공동체가 원하는 소액사업을 많이 늘려서 많은 마을이 참여하고 지루하지 않은 행정보조사업이 필요하다.</p> <p>처음으로 아산, 보령, 예산의 마을만들기 회장님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p> <p>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이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자발적 토론으로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p> <p>모두 참고가 되었다면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p> <p>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마을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치하여 함께 문제를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p>
-------------	---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담당자의 경험

이상환 팀장(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사업팀)

〈시작하며〉

“텔레비전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려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주인도 모르는 강아지를 데려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아마도 그대로 방치하면 강아지가 죽게 될 것 같으니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합해져서 강아지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먹여 살려내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의 화초와 나무도 병들고 시들어 고사할까 싶어 물 주고 거름 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정성을 기울이며 공을 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동물들과 화초, 나무 같은 식물들도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살리려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줍니다.

그런데 동물도, 식물도 모두 소중하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에는 남의 일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들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마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 지킴 해 온 것을 나이로 환산하면 마을의 평균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연혁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왔으니 적게는 수백 년 크게는 수천 년, 수만 년의 나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을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셨으며, 3대, 4대, 선조 대대의 조상들이 안식처로 머물렀던 공동체 삶의 얼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계신 이장님과 마을리더, 그리고 주민 여러분은 몇백 년 이어 온 보물 같은 소중한 마을을 소멸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자식과 손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바쁜 일 제쳐두고 이렇게 마을회관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며 몇백 년 이어 온 마을의 생명이 여기 모인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하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마을만들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에 출장 갔을 때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한테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던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말주변이 없지만 다행히도 위에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많이 공감해주고 수긍 하며 산만한 분위기가 조금은 진지하게 변하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경청해주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 한구석에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는 애향심과 자긍심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우리 시에서도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을만들기 업무를 몇 년간 맡아서 추진해 왔지만, 누군가 “어떻게 해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내려보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을만들기 업무를 남들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다움을 사랑하는 살기좋은 마을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마음에 앞서다 보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마당을 통해 저 스스로부터 학습하고 배우며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의 이해”의 발표문에서 제안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1 : 마을자치 시스템은 행정정보조사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가? 결과인가?

마을만들기 당사자이면서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도출해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남들이 아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을발전계획 추진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행정정보조사사업의 마을만들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자치시스템이 처음부터 갖추어지는 경우와 마을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갖추어지는 경우, 그리고 마을만들기 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유지하는 경우 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시종일관 유지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마을은 가뭄에 콩 나오듯이 드물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 마을도 행정의 끊임없는 관심과 마을 활동가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어 가능하였음을 볼 때 마을자치시스템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에 눈을 뜨게 한 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2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꼭 필요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만 해도 시대적인 환경과 정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의 의식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마음보다 앞서 있기에 당시에는 자율적인 마을가꾸기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의 역량단계별 추진체계에서 예비단계의 경우 용어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적으로 펼쳐 가는 데 있어서 예비단계이지만 마을만들기에 확실하게 입문시키고, 기초를 다져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량단계별 내용 중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하는 예비단계에 대해 우리 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단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비단계를 세분화하는 형성(공동체 시작) -도약(공동체 조직) - 성장(공동체 활성화)의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성단계”는 공동체의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을만들기역량강화사업”을 마을당 100~15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발굴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형성단계를 거친 마을 중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도약단계”는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농촌현장포럼” 1,000만원으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쉽고 즐거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00만원의 마을만들기 실습을 하도록 하고 도약단계를 거친 마을 중 지속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실천하는 우수한 마을은 또 한 단계 성장시키는 “성장단계”는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희망마을선행사업”이 있어 마을당 3,000만원의 소규모 사업의 경험축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의 타 시·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단계를 세분화하여 역량단계별 사업을 시·군별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단계를 세분화하여 형성-도약-성장의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앞에서 다루었던 마을자치시스템 역량의 활동없이 다음 단계로 오르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사례는 마을의 이장과 역량 미달의 리더들의 행정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예비단계에서 마을의 이장과 추진위원장, 그리고 리더들의 역량 함양을 예비단계에서 충분히 실시해주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강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3 :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방향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얼굴을 할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봅니다.

농촌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을 중에서 상당한 마을이 마을만들기를 통해 잘사는 마을, 즉 다른 마을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마을이 되고 싶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향의 향수가 느껴지고 농촌다움의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사는 마을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여건과 준비도 없이 대뜸 체험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만 마음을 두고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마을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행정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하면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마을의 공익적인 발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어떻게 할까? 에 욕심을 내는 안타까운 사례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과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여줄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만들기에 참여를 하여 풀을 뽑고, 꽃을 심어 가꾸며 마을 구석구석 보기 좋게 꾸미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장난질 치며 주민들 간에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을에 아름다운 공간이 늘어날 때 주민들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옛글에 “물 뿌리고, 비질하며, 묻는 말에 조리 있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러한 글을 생활의 습관으로 익혀 오다보니, 옛 사람들은 가꾸고 닦는 청소를 道라고 생각하여 내 주변과 내가 머무르는 곳을 청결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도 수양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 같으며 그러다 보니 시골의 마을의 경관이 쾌적하고 곳곳에 생명의 온기가 늘 함께하여 농촌다움이 저절로 형성 되었던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무엇보다도 “농촌다움”이 전제조건처럼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촌다움의 마을만들기가 전제조건과 같이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 농촌체

힘과 소득사업이 실시 된다면 관련된 공동체 활동이 행복한 공간에서 더 멀리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주민들이 농촌마을의 삶의 터전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 “농촌다움”의 사업 꼭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그리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예비단계의 효율적인 세부 운영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 중 마을리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장”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이장의 역할에 따라 마을만들기 예비단계의 진입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임무, 해야 할 일 등에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이장 선출조건에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마을기금”, “공동체수당” 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와 토론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마을리더인 “이장”의 역할에 대한 개선으로 마을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업무를 추진하면 느꼈던 생각을 두서없이 짧은 소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하였으니 마을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회사와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으로 행정보조사업을 말하다.

이재범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이해관계자별 행정보조사업의 관점과 역할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참으로 어려운 말이다. 이번 대화마당의 토론주제에 대한 의제를 받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짧은 마을만들기 경험을 토대로 견해를 써보고자 한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마을자치 시스템은 행정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가, 결과인가?

마을만들기에 행정보조사업과 마을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관계임은 분명하다.

오늘 의제로 생각해본다고 하면, 마을자치 시스템은 행정보조사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이야기가 결국은 같은 맥락이지만, 마을자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마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이고, 마을자치 시스템이 미비한 마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행정보조사업은 마을의 발전, 성장, 활성화 등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서의 수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 마을 자치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을 자치 시스템이 갖춰진 마을이라하여 준비된 마을의 척도를 명확히 평가할 수는 없다. 행정보조사업은 각각의 사업별 지침이 있고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역량을 지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리 마을 단위 공모사업의 지원 개수와 규모(액수), 내용은 적절한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꼭 필요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마을단위 공모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마을만들기에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방이양이라는 정책을 놓어촌포럼 자리에서 처음 들었을 때에는 참으로 암담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라고? 그게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다. 물론 마을단위의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여, 방향을 설정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하기에 필수라고만 생각을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금방 바뀌었다. 이미 준비 하고 있었던 충남도와 더불어 예산군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마을지원센터와 논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 진행하였던 큰 틀과 충남형 마을만들기, 예산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 지원체계를 고려해본다면, 지방이양 전과는 크게 다른 사항은 없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다.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는 단계별로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을만들기에 입문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사업규모의 영역으로 확장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또한 단계별 이행에 미진한 마을 또는 경쟁에 의해 후순위가 된 마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군에서는 지방이양이 되는 시점부터 마을단위의 사후관리 측면으로도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려해보고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에는 사후관리 측면으로 공모사업을 지원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신규마을 발굴에 대한 공모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들의 관리측면인 사후관리형 단계도 고려가 필요하다.

단계별 지원체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소요이다. 이는 주민들의 피로도를 많이 가지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을의 역사가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닌 것처럼 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시간이 함께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 5년 이상 걸리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일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 집중형 마을대학을 통해 현장포럼의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의 시간을 축소하여 진행, 또는 현장포럼과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병행하는 방법 등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센터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모 사업의 진행절차에서 역량강화방식(창안대회)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

창안대회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회사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입사했을 때 프로그램 중에 창안대학교 프로그램이 제일 눈에 들어 왔었다. 좋은 프로그램은 정교하게, 세련되게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의 행정정보조사사업에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의욕이 있는 마을 또는 주민활동 팀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마을자치 기본예산제 방식은 정말 혁신적인가?

기본예산제에 대해서는 이번 구자인 박사가 올려 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농민기본소득제도 등 여러 가지가 농촌에 지원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필수적이다. 기본예산제 또한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제도적으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정책이다.

다만 주민주도 상향식 발전, 집행에 대한 자율성 확보 등에 대한 강점들은 생기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고, 특정 단체에 권한으로 여겨지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위에 5가지 의제에 대해 토론문을 작성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만들기와 행정정보조사업, 이 두 가지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마을만들기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 확보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의 사업, 그리고 공공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의 주민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행정정보조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갖춰지는 마을만들기로 만들어야 한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 또한, 행정정보조사업의 의존도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이러한 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마을의 공동체 조직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주민 공동체 조직의 자율적 활동역량 제고, 마을의 내실화 등 마을만들기와 행정정보조사업의 적절하게 결합 되었을 때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11년부터 농촌에 대해 공부하고 12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진행한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뛰어들게 되었다. 농촌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전국적으로 여러 마을과 주민들을 만나며 농촌 마을사업을 진행했고, 지금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에)에 근무를 하며 예산군의 많은 마을과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활동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를 키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주인으로써 역할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 및 전문가, 활동가 등은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 한다면 어느 마을이더라도 성공적인 마을만들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